

# 전쟁윤리 기말 단권화

## 쾌락과 고통 계산 7가지 척도

1. 쾌락이나 고통의 **강도**: 얼마나 강한가
2. **지속성**: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3. **확실성** 또는 **불확실성**: 발생할 것이 얼마나 확실한가
4. **근접성** 또는 **소원성**: 얼마나 가까운 시점에 발생하는가
5. **생산성**: 동일한 종류의 감각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는가. 즉, 쾌락이 쾌락을 고통이 고통을 다시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가
6. **순수성**: 반대되는 종류의 감각이 뒤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즉, 쾌락이면 고통이, 고통이면 쾌락이 뒤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
7. **범위**: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수

## 강지확접생수범

## 정언 명령 2가지 정식

정언명령의 보편성 정식: 너의 의지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법칙 수립의 원리에 타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 너의 의지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정언명령의 목적성 정식: 내가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 인간성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하라.

=> 인간성을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동하라.

## 공리주의 윤리학

공리주의 윤리학은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피하는 존재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결과 중심의 윤리 이론이다. 공리주의의 핵심 원리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어떤 행위가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고 본다. 제레미 벤담은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에서 이 원리를 도덕 판단과 입법 활동의 기준으로 제시하며, **쾌락과 고통이 인간 행위의 유일한 평가 기준**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쾌락과 고통이 계산 가능한 요소라고 보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강도, 지속성, 확실성, 접근성, 생산성, 순수성, 범위의 7가지 척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벤담의 공리주의는 경험 가능한 감정에 근거하여 도덕 판단을 추상적 개념이 아닌 실천 가능한 기준으로 전환하였으며, 윤리학을 정치와 입법의 영역으로까지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공리주의는 사회 전체의 효용을 고려하는 실용적 장점이 있으나, **소수의 권리가 다수의 행복을 위해 희생될 수 있다**는 윤리적 한계도 지닌다. 또한 행위의 **동기나 원칙보다 결과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정당성의 근거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는 도덕성과 정책 판단을 연결하는 중요한 이론으로, 근대 도덕 철학과 정치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 칸트주의 윤리학

칸트주의 윤리학은 행위의 **결과가 아닌 동기와 원칙에 도덕적 가치를 두는 의무론적 윤리 사상**이다. 마이클 샌델은 칸트가 정의를 결과가 아니라 **자율적 도덕 의지에 근거한 원칙**에서 찾았다고 설명한다. 칸트에게 도덕적 행위란 외부의 영향이나 개인적 욕망이 아니라 이성과 자유로운 의지, 즉 자율성에 따라 결정된 행위이다.

이러한 윤리 체계의 핵심은 **정언명령**이다. 이는 도덕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인간은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칸트에게 인간은 자기 입법이 가능한 존재이며, 그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간주된다.

결국 칸트주의 윤리학은 인간을 자율적이고 존엄한 존재로 간주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결과가 아닌 보편적 도덕 원칙에 따라 행위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는 공리주의와 달리, 타인의 권리와 인간 존엄을 침해하지 않는 정의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